

음식료

경쟁은 식품기업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료 Analyst 송치호

02. 3779-8978 chihosong@ebestsec.co.kr



Neutral

이슈 - 식품산업에서 기존 카테고리간의 마케팅경쟁 우려가 존재하는데?

송세프 View - 식품산업 안에서 기존 식품 카테고리에서의 경쟁 심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식품기업 간에 과거처럼 1+1, 2+1 방식의 경쟁이 중심이 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1)요리보다는 간편식으로 소비패턴이 옮겨져 가면서 원재료가공식품을 덜 소비하게 되는 것과, 2) 유통채널의 PB 중에서 초저가형 PB 의(노브랜드 등) 확대에 의한 PB 영역 확대에 보다 중요한 우려요인이 있다고 판단한다.

아이디어 #1 - 식품 산업안에서의 기존 식품 기업간의 경쟁우려 우려가 존재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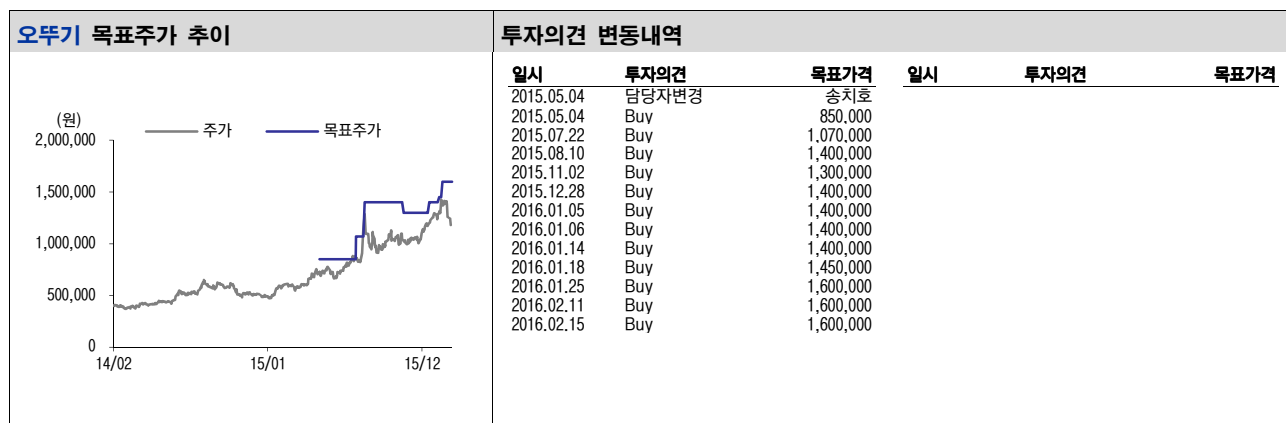
송세프 View #1 - 최근 식품산업 안에서 기존 식품 카테고리(장류, 소스, 등 원재료 가공 식품 등)의 기존 주도 식품기업간의 경쟁 심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과거 경쟁심화시기의 1+1, 2+1 등의 마케팅 경쟁이 확대되면서 식품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 방향으로의 경쟁심화는 효율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주요 식품기업들의 선택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과거 이들 원재료가공식품 카테고리가 Q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판촉확대를 통한 M/S 확대 노력이 의미가 존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과거보다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아이디어 #2 - 경쟁은 식품기업 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송세프 View #2 - 필자는 15년 11월 2일 발간한 '정말 일본화 되는가?'라는 자료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리를 직접하는 식품소비에서 간편식중심의 식품소비로 변화해나갈 것으로 전망해나간 바있다. 이러한 간편식 중심의 소비로 주요 식품 기업의 원재료가공식품 소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소해나갈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최근 이마트에서 확대하고 있는 PB인 '노브랜드'는 기존식품 카테고리의 초저가 상품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존 식품 카테고리의 표준상품의 초저가 제품으로 주요 식품기업들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1+1, 2+1의 대량제품 마케팅보다는 소량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은 이와 같은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 #3 - 오투기에의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 - 라면부문에 투자포인트 집중하자

송세프 View #3 -기존식품부문 우려요인은 단기 보다는 장기적인 영역에서의 우려요인으로 판단한다. 다만 식품산업은 2015년의 요리의 열풍으로 인한 높은 실적 베이스효과, 지난 수년간의 중소형/소비재밸리로 인한 Valuation 상승 등으로 인하여, 16년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몇몇 혁신카테고리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투자를 집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오투기는 16년에는 식품카테고리에서의 추가 랠리 보다는, 라면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 플레이어로서의 투자포인트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송치호)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 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20% 이상 기대 -20% ~ +20% 기대 -20% 이하 기대	92.1% 7.9% 100.0%	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 단계 (Strong Buy / Buy / Marketperform / Sell)에서 3 단계 (Buy / Hold / Sell)로 변경 투자 의견 비율은 2015. 1. 1 ~ 2015.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